

민주 “이재명, 내일 檢 출석 안 한다…재소환시 그때 판단”

안호영 “檢 출석 협의 요청 오면 그때 판단할 것” 한동훈 반박…“김건희 왜 소환 안하는지 답 해야” 박지원 고문으로 위촉…정태호도 민주연구원장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연루된 이재명 당 대표의 검찰 소환조사와 관련해 불출석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근 '좌표찍기' 논란이 불거진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수사 검사 명단 공개에 대한 문제가 없다고 일축했다. 최근 복당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당의 고문으로 위촉됐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내일 모레(28일) 당의 최고위원회의 일정이 이미 광주에서 정해져 있는 상황이라 당에선

출석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이번에 (소환을) 통보할 때 검찰이 협의해야 한다는 규정에도 반해서 일방적으로 팩스로 통보했다”며 “향후 문제에 대해서는 검찰이 또 출석에 관련된 협의 요청이 오면 그때 가서 판단하겠다”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최근 이재명 대표에 관한 수사를 진행 중인 검사들의 실명 및 사진을 공개한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실명 공개 비판에

대해서도 역공을 가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그건 말도 안 되는 말씀”이라며 “검사의 이런 행위라고 하는 것은 단독 관청으로서 자기의 이름 걸고 하는 것이고 어느 검사가 어떤 사건 수사하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언론에도 다 공개돼있는 거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자기를 수사를 했으면 수사한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공개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며 “공정의 문제를 이야기하려면 이재명 대표의 소환에 앞서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문 제부터 한동훈 장관은 왜 소환 안하고 있는지 등을 답하는 게 맞다”고 반박했다. 앞서 한 장관은 이날 오전 법무부 청사 출근길에서 “개인의 형사 문제를 모면하려고 공당의 공식 조직을 동원해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 중인 공직자들의 좌표를 찍고 조리돌림 당하도록 공개 선동하는 것은 범죄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안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회의를 통해 의결된 당내 인사에 대해서도 밝혔다. 민주당은 이학영 의원을 민주당 당무감사원장으로 선임하도록 당무위원회 안건으로 부의하기로 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고문으로 위촉하기로 했다. 정태호 의원은 민주당 정책연구원인 민주연구원장으로 이재명 대표가 직접 지명해 오는 30일 이사회에서 해당 안건이 승인될 예정이다. 안 수석대변인은 “이번 인사는 모두 이런 능력과 경력을 감안해서 인사가 이뤄졌다”며 “정태호 민주연구원장은 과거 우리 청와대에서 대변인도 했고, 정책과 관련된 일을 했으며 당에서도 전략기획위원장으로 정책위 수석부장으로 다양한 경력 갖고 있는 경

륜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지원 전 원장의 경우에도 전 국가정보원장, 또 4선 의원으로서의 여러가지 경륜 갖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 이학영 의원도 3선 중진 의원으로서 경륜 감안해서 인사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가 내년 연초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기로 계획돼 있다는 보도에 대해서 “향후에 부산 쪽을 방문할 일정이 있기 때문에 (부산에) 가게 되면 그런 가능성이 검토할 수는 있는 문제라는 생각이 든다. 다만 아직 구체적으로 협의된 바는 없다”고 덧붙였다. 여야가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는 일몰법안들에 대해서는 “(여야 지도부간) 여러가지 검토가 있고 대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최이슬기자**

이낙연, 尹 정부에 “복합위기에 대한민국 방향 잃어…고민 안 보여”

尹 정부 겨냥…“위기 고민 안 보인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윤석열 정부에 대해 “지금 대한민국은 방향을 잃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방향을 잃고 있다”며 “노인과 빈곤층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자는 의료복지정책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윤석열 정부 정책을 겨냥했다. 모처럼 정부 비판에 나선 이 전 대표의 행보를 두고 당 안팎에서는 사법 리스크에 휩싸인 이재명 대표 체제를 대비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러 “금리 인상으로 가계부채 부담이 급증해 눈사태 같은 상황이 다가오는데도 세금 정책은 다른 쪽을 바라보고 있다”며 “경제와 안보의 복합위기가 몰려오지만, 과연 어떤 고민을 하는지 잘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는 변형윤 서울대 명예교수와 조세희 작가의 별세에 대해 “두 분을 보내 드리며 저희 세대의 못남을 자책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변형윤 서울대 명예교수님과 조세희 작가님께서 잇달아 별세하셨다”며 “두 분의 생애와 저희가 꾸리는 지금 세상을 생각

하니, 부끄럽고 참담하기 짝이 없다”고 운을 폈다. 이어 “변형윤 선생님은 일찍이 1960년대 초에 ‘소득재분배’ 개념을 도입하신, 국내 진보 경제학의 선구자”라며 “이승만 장기독재에 항거한 4·19혁명에 참여하시고, 신군부가 준동하던 1980년 시국선언에 참여해 4년 동안이나 해직되신 ‘행동하는 양심’이셨다”고 소개했다. 그는 “저희는 선생님의 말씀에 가슴 설레고, 선생님의 행동에 죽비를 맞으며 자랐다. 감사드립니다”고 추모했다. 또 “조세희 작가님은 1970년대 연작소설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으로 도시빈민의 실상을 세상에 알리며,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해주셨다”며 “서울 어느 곳 무허가 주택에 사는 난쟁이 가족의 삶을 짚은 시절의 저도 아픔으로, 분노로 읽던 기억이 새롭다”고 기억했다. 그러면서 “두 분 모두 우리 사회의 그늘과 약자들에게 햇볕을 보내라고 호소하셨다”며 “단번에 완전히 해결하지는 못하더라도, 우리는 그 방향으로 좀 더 빨리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6월 미국 워싱턴으로 출국해 연수차 머무르고 있다. 한국의 대표적인 진보성향 원로 경제학자인 변형윤 서울대 명예교수는 지난 25일 향년 95세로 별세했다.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의 저자인 조세희 작가는 향년 80세로 같은 날 별세했다. **김재환기자**

이재명, YTN 돌발영상 사태에 “與, 비판언론 찍어내기 목불인견”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울고 갈 언론 탄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YTN 돌발영상 사태 등을 언급하며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울고 갈 정도의 언론 탄압, 비판 말할”이라며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비판 언론 찍어내기가 점입가경, 목불인견”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수년 동안 국민들에게 가장 사랑받은 프로그램까지 존폐 기로에 섰단다”고 밝혔다. 이는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 점검회의의 관련 YTN 돌발영상을 둘러싼 논란을 지적한 것이

다. 그는 또 “집권 여당은 보수 논객 감별사를 자처하면서 방송사에 직접 압력을 가하는 모양”이라고 했다. 이는 국민의힘 측이 보수 패널 편향성 지적에 나선 데 대한 비판에 해당한다. 이 대표는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이렇게 대놓고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언론을 압박하는 건기가 막힐 일”이라며 “비판적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현 정부는 국정 실패, 탈선을 피하기 어렵다”고 했다. 아울러 “감시와 견제 역할이 사라진 권력이 성공하는 것을 봤는가”라며 “폭력적인 수단으로 국민과 언론을 억누를 수 있다고 믿는다면 명백한 오산”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국민 심판을 자초하는 어리석은 언론 자유 파괴를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면서 “권력은 썩다”고 말했다. **서선욱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